

2조5천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 닷 올랐다

신시도와 가력도 사이 인공섬 방식으로 개발

2030년까지 단계적 18선석 조성...14일 기공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군산 신시도 새만금 33 센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시도와 가력도 사이 2호 방조제

앞바다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방조제와 항만 사이에 폭 600~700m의 수로를 배치하는 인공 섬 방식으로 개발된다. 인공 섬 방식은 수로에 해수를 드나들게 해 연안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4개 선석(船席)을 만든 뒤 2단계인

2030년까지 10년간 14선석을 추가, 총 18선석으로 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방파제 길이 3.5km, 항만 부지 488만㎡의 규모다.

사업비는 국비 1조4102억원과 민자 1조1380억원 등 총 2조5482억원이 투입된다. 대형 유람선이 드나들 크루즈 전용부두도 건설된다.

우선 1단계 사업은 방파제 3.1km와 비안도 어선보호시설 0.3km를 조성하며 총 2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을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su@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태양광·태양열 시설 확대

도, 88억 투입...750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 결과 올해 9만3000여 세대가 참여, 지난해(7만 5000세대)보다 23% 증가했다.

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를 비롯해 절전형 전등(LED) 교체사업과 가정세대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 또는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북도는 녹색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개별주택과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 공동사업 등 750가구에 88억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연말까지 60억원을 들여 부안군 청사 태양광설치와 완주군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남원청사 지열냉난방 시설 등 일반 공공시설 13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하게 된다.

또 복지시설인 장수 공립보육시설, 남원 행복의 집, 정읍 실비 노인요양원 등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

그린 홈,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의 경우 설치가구가 지난해 400가구보다 53%가 증가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설치를 완료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063-212-7082)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탄소 포인트제, CO₂ 1767t 감축

고창 32%·진안 23%·부안 23% 등

도 "소나무 35만3000그루 식재 효과"

전북도는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한 결과 2011년 하반기(7~12월)에 온실가스 1767t을 감축시켜 소나무 35만3000그루 식재 효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군이 32%로 가장 높으며, 진안군 23%·부안군 23%·군산시 22% 순으로 도 평균 16% 감축효과를 보였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한 양을 온실가스로 환산, 절감한 만큼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제도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세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이백면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희망나눔 김치 담아주기 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최근 내동마을 휴경지 2470㎡를 임차해 모내기를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사랑의 모내기

남원시, 휴경지 경작 독거노인 돕기 3년째

남원시 이백면 직원들이 3년째 관내 휴경지를 경작해 나온 수익으로 지역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백면사무소 직원들은 올해 내동마을을 2470㎡를 무상 임대해 지난 4일 로터리 작업과 물대기를 마치고 7일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번 휴경지 경작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희망나눔 김치 담아주기 사업' 기금마련을 위함이다.

이백면은 3년째 휴경지를 임차해 벼를 경작해 나온 수입으로 배추·무 등 김장용 채소를 재배, 연말에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각 마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다.

임영란 이백면장은 "휴한지 경작을 위한 모내기를 시작으로 올 한해에도 희망나눔 경작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단 신

뮤직뱅크, 전북 방문의 해 기념 공연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K-POP 스타와 함께 하는 뮤직뱅크 공연이 지난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전북도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은 '전북 방문의 해' 축제분위기 상승과 볼거리 제공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전북을 홍보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인피니트 등 대표적 K-POP 스타들이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800여명을 비롯 3만여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메웠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익산 부송도서관 북카페 등 새단장

지난 4월 개관한 익산시 부송도서관이 6월부터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부송도서관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 자료실을 1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주말은 오후 5시까지)한다. 또 누구나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북카

페 '책향기'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책 향기에서 커피 여행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송도서관은 앞으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만델링 순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 사랑장학재단, 학당 수강생 선발

김제 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견식)은 올 하반기 '지평선 학당' 수강생을 선발한다.

재단은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의한 정원내 선발 110명과 학교장 추천(고교생에 한함)으로 정원의 42명을 선발하는 등 총 1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내 선발인원의 20%를 선발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11일까지이며, 선발시험은 오는 16일 지평선학당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문의(063-540-3870)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성료

'제 16회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이 지난 8일 실상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남원시 주최·(사)한생명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실상사 주변 지역 인근 마천, 산내, 이영, 운봉, 인월면의 1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0

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글쓰기 한마당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주고, 각 학교가 어울림 속에서 지역 공동체 모습을 되살리며, 글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 공무원 250명 청렴마인드 교육

순창군이 도덕적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최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창희 청렴에도 희망나눔 경작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의 특강을 펼쳤다. 한창희 강사는 "공직자 비리는 사소한 관행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청렴은 무거운 것, 불편한 것 등 결과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극히 본적이라는 청렴 프레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소비가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사진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와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물건종별 : 의료시설

■토지면적 : 9,517㎡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 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